

Tim Gombis 박사 , 갈라디아서, 세션 1, 갈라디아서 소개

© 2024 Tim Gombis 및 Ted Hildebrandt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Tim Gombes 입니다 . 세션 1, 갈라디아서 소개입니다.

갈라디아서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팀 고킴비스 입니다 . 나는 그랜드 래피즈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함께한 지 20년 남짓 되었습니다.

내가 원래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나의 기독교 경험 초기였습니다. 나는 약 17~18년 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27~28년 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나는 기독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구약성경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나는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끊임없이 읽고, 시편과 잠언을 읽고, 어느 정도 선지서에 빠져들었지만,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처음 다섯 권의 내용에만 전념했습니다. 구약의 책들. 몇 년에 걸쳐 나는 또한 신약성서의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집중했던 성경 부분이었고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모세서 처음 다섯 권을 좋아했습니다.

기독교 여행이 시작된 지 4, 5년쯤 지나서 나는 신학교에 가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성경 공부에 참여했지만, 그때까지 접하지 못했던 다른 해석적 접근 방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의 어두운 배경을 배경으로 하는 복음의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은 사람입니다. 법은 사람을 때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결점을 보여 주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일종의 가르쳐졌습니다. 복음이 나타났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표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많은 부분이 나에게 이해가 되었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왜 바울이 구약성서, 특히 모세 율법을 율법이 볼 때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는가였습니다. 그 자체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좋은 선물임을 표현합니다.

사실, 신명기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덕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시편 19편과 119편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들인데, 그 중 많은 부분을 외워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에 관해 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썄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법에 관해 몇 가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복음 안의 율법을 어느 정도 반대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신비한 질문이었고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질문이었지만, 나를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만드는 만족스러운 갈라디아서 읽는 방법을 찾도록 이끈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 갈라디아서 3장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바울의 논증이 완전히 뒤엎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아마도 바울 서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 학자들의 진술을 접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후 3년 후 THM을 위해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0~14장에 대한 두 번째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율법 구절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내내 나는 갈라디아서를 정말 마음에 담고 사랑했고, 늘 갈라디아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2018년 새벽에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매우 분열된 문화 속에서 갈라디아서가 특히 매우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갈등하는 문화.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표를 정한 복음 말씀입니다.

이 연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성경 본문을 온라인이나 전자 형식에서 캡처하여 Word 문서에 넣는 것이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것을 Word 문서에 넣고, 성경 번역가들이 거기에 넣은 제목과 같은 끔찍한 침입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실행 텍스트로 만듭니다. 단락 나누기 및 이와 유사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의 지속적인 텍스트를 만드십시오. 이는 바울이 그 편지를 제시하여 귀하가 직접 텍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가장 유기적입니다. 나는 그 사본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어 본문을 작업하면서 작업했던 나만의 갈라디아서 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본문을 읽고, 관찰하고, 질문과 여백을 적고, 해석적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연구 서문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설명, 앞으로 보게 될 내용,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고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는 매우 이상한 문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발견한 바울에 관한 것 중 하나는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에서의 기독교 경험에서 저를 놀라게 하는 바울에 관한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부가 불분명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성경 부분 중 하나는 바울의 서신이라는 바울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신앙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므로 바울은 일종의 우리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만약 그가 현대 미국에 나타난다면, 그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 중 한 곳으로 들어가 마침내 '내 백성'과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거의 같은 느낌을 받은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화면의 그림에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내 사무실에 이것의 사본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자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온라인 어딘가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자화상을 그렸지만, 렘브란트는 자신을 위대한 예술적 전통의 계승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 전통을 넘어 전통을 미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바울이 위대한 전통, 성경적 전통, 유대교의 상속자라고 가정합니다.

그는 전통을 깨뜨립니다. 그는 새롭고 다른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낡은 것을 뒤로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구약과 율법, 심지어 유대교에 반대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종종 상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바울을 읽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해했다고 느꼈던 사람의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인용문이 있습니다. 바울 연구에 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문 중 일부입니다. 첫 번째 것은 바울의 위대한 독일 해석가인 에른스트 카제만(Ernst Kasemann)의 인용문입니다 .

그는 바울 해석의 역사는 교회가 사도를 길들인 이야기, 사도를 길들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즉, 카제만은 해석자들이 바울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교회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와 갈라디아서에 공감하는 것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그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한 또 다른 사람은 케임브리지의 위대한 학자 모르타 후커(Mor ta Hooker)입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지만 이전 세대입니다. 그녀는 Paul의 문제는 우리가 그를 너무 잘 알고 있거나 어쩌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그녀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Paul에 대한 연례 강의를 시작할 때 사용한 진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을 길들이는 위험은 항상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된 것은 학생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이상하게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아주 거리가 먼 문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나의 개인적인 기독교 경험을 아주 잘 이해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너 구절을 읽어보면 이 진술은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다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우리에게 경건한 감동을 주거나 경건한 히트를 주는 구절을 계속 읽습니다.

친숙하게 들리는 진술조차도 다른 세계에서 온 일련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바울은 성경의 세계, 즉 성경이 표현한 세계에 완전히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인데, 특히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는 같은 바리새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구약학자들과 구약을 근거로 논쟁을 벌이는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중 일부는 성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의해 형성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강렬한 것들을 해킹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갈 유망한 방법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낫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곳이 어디든 여기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나 21세기 미국의 환경에서 나는 미국의 자녀입니다.

나는 서양의 아이입니다. 나는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문화 혁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사실 생각보다 나와 거리가 멀고,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향한 첫 걸음이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또 다른 도전, 즉 서론을 통한 또 다른 종류의 논평은 우리가 종종 기독교와 유대교를 두 개의 별도 종교로 생각하고 종종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이것은 친기독교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유대교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데 실제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 썼고, 바울과 논쟁을 벌이는 다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바울은 유대교라는 더 큰 틀 안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공동체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지만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성경과도 연결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써 그 관계가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두 가지 다른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한 구별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세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쓰거나 유대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하는 유대교는 우리가 유대교로 알고 있는 현대 종교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그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낯선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아직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쓰여진 1세기의 문서입니다.

서문을 통한 세 번째 논평은 우리에게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관해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불행한 번역 현실 중 하나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부정적인 소리 없이는 율법을 말할 수 없으며, 목소리가 낮아지고, 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봐봐, 내 얼굴이 변했어. 토라

생명을 불어넣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앗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싸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교훈입니다.

선물이에요. 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축복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토라를 노모스로 번역했고, 라틴어 사용자들이 그것을 렉스로 번역했고,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통해 이러한 언어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도록 강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방식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바울과 율법, 바울과 구약 사이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생명을 주고 성경적으로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극적이지만 확실히 신약의 모든 본문에 걸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성경 본문 독자인 서구인들이 갈라디아서나 신약성서 본문의 청중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됩니다.

나는 도서관, 즉 텍스트 모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는 어떤 통역자도, 어떤 목사도 성경을 제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모든 사람들, 1세기의 93%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누군가 읽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청중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듣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를 수행하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체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와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나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되는 것, 기독교 제자도가 모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생각할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소리는 청중에게 들립니다. Paul은 그것이 혼합된 청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청중은 이방인이다. 갈라디아인은 모두 이방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에는 유대 기독교 선동가들, 또는 바울의 반대자인 교사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Paul은 이중 청중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말하는 내용 중 일부가 해당 그룹 중 하나에서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 또는 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업의 수사적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개인과 단체의 이해는 우리가 신약성경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개괄적인 소개 논평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조직신학의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

조직신학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와 대학에 존재하는 필수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신학의 저작이 아니다 .

즉,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참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대를 초월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전히 학문적인 맥락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말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말하는 뜨거운 수사적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통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린 다른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르면 그가 다른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Paul이 원했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창의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선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선동적인 문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도발적인 문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뒤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보낸 복음을 배반하는 이방인들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약간 엉뚱합니다. 바울은 여기 첫 장에서 당신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아마도 교회 예배 후에 어떤 내용이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장 8절에서 매우 도발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데 내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도발적인 발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열띤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사적으로 청구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특히 모세의 율법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동료 바리새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구약학자들과 구약을 근거로 논쟁을 벌이는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중 일부는 성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의해 형성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강렬한 것들을 해킹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갈 유망한 방법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낫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있는 곳이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던 곳이던, 여기 우리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나 21세기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나는 미국의 자녀입니다. 나는 서양의 아이입니다. 나는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문화 혁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사실 생각보다 나와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에 관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또 다른 도전, 즉 서론을 통한 또 다른 종류의 주석은 우리가 종종 기독교와 유대교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자주 상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이것이 친기독교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유대교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데 실제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 썼고, 바울과 논쟁을 벌이는 다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바울은 유대교의 더 큰 천막 내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고 어떻게든 유대인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지만 다르지만 성경과도 연결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반드시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두 가지 다른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한 구별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세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쓰거나 유대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하는 유대교는 우리가 유대교로 알고 있는 현대 종교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그것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낯설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이 문서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작성된 1세기의 문서입니다. 서론을 통한 세 번째 논평은 우리에게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관해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불행한 번역 현실 중 하나는 구약의 율법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제가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고는 법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어집니다. 눈썹이 떨어집니다. 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토라. 빛. 생명을 불어넣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앗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두르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교훈입니다. 선물이에요.

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축복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토라를 노모스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사용자들은 그것을 lex로 번역했고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통해 이러한 언어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도록 강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방식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가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바울과 율법, 바울과 구약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주고 성경적으로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확실히 신약의 모든 본문은 우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현대 성경 본문 독자로서 갈라디아서나 신약성서 본문의 첫 번째 청중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됩니다.

나는 도서관, 즉 텍스트 모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는 어떤 통역자도, 어떤 목사도 성경을 제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모든 사람들, 1세기의 93%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누군가 읽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청중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듣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를 수행하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체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와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나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되는 것, 기독교 제자도가 모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생각할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소리는 청중에게 들립니다. Paul은 그것이 혼합된 청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청중은 이방인이다. 갈라디아인은 모두 이방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에는 유대 기독교 선동가들, 또는 바울의 반대자인 교사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Paul은 이중 청중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말하는 내용 중 일부가 해당 그룹 중 하나에서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 사이에 또는 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업의 수사적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개인과 단체의 이해는 우리가 신약성경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물론 갈라디아서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소개 논평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조직신학의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신학교와 대학에 존재하는 필수 규율, 학문 규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신학의 저작이 아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진실이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대를 초월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전히 학문적인 맥락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말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말하는 뜨거운 수사적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린 다른 편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들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에서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르면 그가 다른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Paul이 원했던 영향을 생성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실제로 창의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몇 가지 선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이 일으키기를 원했던 효과.

그는 이것이 선동적인 문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도발적인 문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반대자들을 밀어내려고 했고, 자신이 보낸 복음을 배반한 이방인들을 뒤쫓으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다소 엉뚱합니다. 바울은 여기 첫 장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아마도 교회 예배 후에 받는 방식에 따라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1장 8절에서 매우 도발적인 말을 하고 1장 9절에서 "아, 그런데 내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그는 자신이 한 도발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내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열띤 글이고, 수사적으로 가득찬 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특히 모세 율법에 관해 말한 것을 내가 몇 번 했던 일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그가 이 편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꼭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것들.

사실, 만약 그가 추상적인 강의, 즉 모세 율법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강의를 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진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 율법에 관해 놀라운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그의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서신과 갈라디아서에 관해 말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약성경 서신이 비정기적 문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는 다양한 청중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

편지는 가끔 문학이다. 즉, 어떤 상황을 다루기 위해 기록된 것이며, 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궤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의 저작물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읽으면 모든 종류의 신학에 대한 절대적으로 영광스럽고 풍부한 원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루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글썄요, 저는 갈라디아서 연구 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전략적인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해석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루터와 종교 개혁에 있어서도 로마인과 동등하고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나의 케이트(My Kate)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그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의 아내만큼 소중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 스테이크 부리또가 나만큼이나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만큼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열매 맺는 관계 역학을 갖는 방법, 그리스도의 죽음을 활용하여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나에게 열어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가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민족 및 인종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 말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아주 큰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아마도 루터가 그것을 그토록 따뜻하게 여겼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개념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확실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적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자랐을 수도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든지 갈라디아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유와 경이로움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갈라디아서에 관한 이러한 역동성은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구약성경을 격하시키거나 순종과 같은 중요한 용어를 격하시키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순종이나 순종은 일부 기독교계에서 더러운 단어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법이나 기대의 냄새이거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종류의 것이나 심지어 명령에 대한 관념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풀은 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순종은 항상 가벼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는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명을 주는 현실입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명령은 언제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유롭고 생명을 주며 광활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현실인 반면, 불순종은 위태로운 곳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유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매우 전략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세계관 변화, 셀 수 없이 많은 문화적 변화가 자유가 의미하는 바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매우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미국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구의 자유나 자유주의와는 매우 다른 종류의 현실입니다. Paul은 매우 다른 것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 말하는 방법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갈라디아서를 통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바울이 생각하는 참조 범위를 그리스도인에게 제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기독교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개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어떤 영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나는 성서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그를 볼 때마다 그는 90세가 넘는 나이였지만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읊조리곤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내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의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나온 킹제임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강력하고 강력한 묘사이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풀은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그 진술은 그의 더 큰 주장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으며 바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적인 죄와 싸우는 데 강력한 관념이 되기 위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실제로 바울이 지역 사회에 전하는 종류의 권고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을 것이며 나는 그러한 질문과 그 이상을 탐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배경, 즉 이 편지를 쓰게 된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삶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웹사이트를 가리킬 수 있다면 이것은 Mark Allen Powell의 웹사이트인 Introductionnt.co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그의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와 훌륭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기 위해 그의 부모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실제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 본문에 정신과 마음을 담고 있었고, 문자로 암기된 방대한 성경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성경 암송과 성경 암송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의 전부였습니다. 신약성서의 몇몇 본문에서는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고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재판관을 받을 때, 그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가 어떻게 재판관을 받는지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에게는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단지 바리새인 본부 어딘가의 책상에 있던 문서의 다섯 번째 요점과 그들의 교리적 진술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은 그들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중심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밤낮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을 위한 모든 것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부활은 단순히 주의 날 곧 여호와의 장래 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 바리새인들은 그날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악한 시대의 통치를 중단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부활 생명을 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옹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적들, 로마인들, 이스라엘의 적들, 로마인들은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다시 한번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발등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이스라엘에 자신의 집을 되찾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입증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그곳 예루살렘과 로마 요새인 성전산에 이 모든 이교 로마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더 큰 부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활은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땅에 쏟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악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일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의 순결한 삶을 영위하고 더 많은 이스라엘 인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구원의 지렛대를 당겨 부활을 보내시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십시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인 거룩함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구현하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거룩함을 실제로 본받도록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강압하고, 권고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더럽히고 있는 로마인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과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과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부활을 부어주시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만큼 종말론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즉,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움직임을 항상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신약성서 학자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스탠리 포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 한 사람, 즉 예수의 지상 봉사 기간에 예수를 확인하러 나갔던 예루살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며 그가 지상 사역 동안 예수와 그의 주장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훨씬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실 여기서 갈라디아서에 단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1장을 인용하며, 물론 바울은 성경으로 가득 찬 마음, 성경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애 동안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였습니까? 저주 받은! 그 사람이 아니야!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역사의 잣대 위에 분배되어야 할 또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 안에 이 운동은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기독교 운동이 있고, 이 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인 바울을 위해 제가 방금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폴에게 있어 이 운동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았습시다! 내 말은, 그는 이 땅의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 즉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활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인들을 쫓아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 운동을 진압하려는 사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서 볼 수 있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층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을 더 찾아내어 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둘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새로운 운동을 근절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AD 33년 또는 CE의 일이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려던 중 예수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내 말은, 그는 높으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메섹 길의 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라고 지시했고, 그 시점에서 모든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바울이나 기록은 그 시점에서 그를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시점에서 그는 이제 더 넓은 세상, 비유대인인 이방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될 그 시점에서 극적인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세계. 제가 말했듯이, 기원 33년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사울 즉 바울은 그곳에서 약 3년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가 그것을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사막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아라비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었고 아마도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뭐하는 거야?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아마도 기독교 단체들과 어울리며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성경 본문을 다시 찾아보고, 예수님의 현실을 통해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보가 아닌 이 새로운 경험, 즉 예수, 이 인물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높여지고 부활되고 높여졌다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글썄, 갈라디아서를 쓰기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3년 후 제자들을 방문하고 돌아가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잘 안 돼요.

어려운 방문이었지만 마침내 바나바가 개입하여 바울을 제자들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그러니까 3년 후, 그는 사울이 말썽꾸러기일 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내 말은, 그가 어디에 있던 일이 터질 것 같다는 거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서기 36년경입니다. 그는 그의 고향인 다소에 있는 타르수스에서 약 8~9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의 삶.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연구하고, 다른 기독교 단체를 찾을 수 있으면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가 성경과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과격하게 박해하던 바울이 갑자기 개종하여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랜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거기에 어떤 종류의 기독교 원칙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누구에게도 경고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타르수스에 있는 동안 8~9년의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기 44년이나 45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초기 인물인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곳 안디옥에 기독교 단체가 생겨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저쪽으로 보내서 그 일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삼촌인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피터를 팔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는 Paul을 팔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여기 안디옥의 목사가 될 예정인데, 그는 이런 괴짜 구약학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저기 타르수스에 이런 괴상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사울, 그 사람 뭐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초대했고, 사울은 그곳 안디옥에서 사역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흥미 롭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대제 와 행정관과 담임목사 바나바와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데리고 온 마나안이라 하셨으니 분봉왕 헤롯과 사울과 함께. 이것은 사울이 회심한 지 약 12년 후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회심한 지 12년이 지난 뒤에도 그가 회심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람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선지자와 교사 중 한 사람이며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곳에 있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는 데는 약 12년이 흘렀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로부터 3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합니다. 잘 안 돼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그 후 약 8~9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10년 후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인데, 그것은 기근 구호 방문이라고 불리며 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 또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해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역 기간 내내 그곳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이 연결되어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를 보지 못하는 먼 선교사와 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떠난 지 10년쯤 됐는데, 그냥 잠깐 들렀을 뿐이고, 좀 은둔하고 별로 시끄럽지 않은 편인데, 바나바가 모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요 인물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실제로 중요합니다. 반대자들, 실제로 바울의 여행을 따르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종류의 그룹이 생겨나면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수행한 선교 사업을 어느 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의혹이 있을 것이고, 갈라디아 상황과 같은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14장에서 누가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일은 서기 47, 48년 또는 CE경에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여전히 우리가 그를 그렇게 만드는 주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현재까지 루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도 아닙니다. 그는 바나바의 여행에 동행하지만, 이 여행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거나 자신을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루크의 이야기가 바뀌는 것도 이 여행에서입니다.

그는 그룹을 바울과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 바울이 추월하여 주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아, 여기 또 다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Mark Allen Powell의 웹사이트에 있는 Paul의 첫 번째 여행 지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리스트라에 있을 때, 바울은 말을 한 후 그 도시에서 끌려나오고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Luke는 그 그룹이 Paul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그냥 그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Luke는 이런 종류의 비밀스러운 공백을 그냥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고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일어섰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도시로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예쁘네요. 바울이 방문한 이 교회들, 즉 이 도시들은 안타깝지만 리스트라와 더베와 이고니온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으므로 아마도 리스트라나 데르베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도 교회들의 집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도시들에 교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 어딘가에 갈라디아서가 파견되는 교회들의 집합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전개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내 생각에는 루크가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그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는 바울이 죽었다가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매우 자주 누가가 보게 될 기적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다리의 족쇄를 어떻게 풀어주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채울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기적적인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와 같이 군중이 예수님을 언덕 꼭대기로 데려가면 그들은 갈 것입니다. 그를 쫓아내려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을 지나서 자기 길을 가느니라. 당신은 루크, 이것을 채워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글썄요, 루크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적을수록 독자와 청자의 상상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누가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표시이며 이것은 기적적인 보고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소생이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대 세계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던지거나 심지어 누군가에게 던지는 골프공 크기의 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돌을 던지는 일은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누군가를 선반에서 던져 어색하게 착지한 다음 그 사람에게 바위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시카고에서 자랐을 때 우리는 12인치 소프트볼이 아닌 16인치 소프트볼을 사용했습니다. 16인치 크기의 바위를 가져다가 아래로 던지거나 더 큰 덩어리를 사람에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폭도로서 분노에 차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즉, 당신은 가서 그들의 두개골에 큰 것을 떨어뜨리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두개골을 으깨버릴 것입니다. 이걸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라는 걸 나도 알아요. 이것은 꽤 역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원래 방문했을 때 어떤 종류의 환영을 받았는지 실제로 나타내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구하노니 나와 같이 되라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몸의 상태 때문이었거나 몸의 질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거기서 멈춰야 했던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리스트라에서 있었던 돌에 맞아 다리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부서진 사건과 일치한다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상처를 앓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몸의 상태에 대해 말할 때, 내 생각에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은 후의 끔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러진 갈비뼈, 부서진 손, 심하게 기형인 두개골은 아니더라도 Paul은 기본적으로 그의 외모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의 외모가 너희를 시험하였느니라. 간단히 말해서, 이번 리스트라 방문은 그가 잠시 멈춰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기회였고,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으며, 교회를 설립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창립이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자 베드로는 어느 시점에 방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지만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한 바울과 베드로의 대결입니다.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복음을 분명히 설명할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첫 대결은 결국 예루살렘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면 때는 49년쯤, 즉 49년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교사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사들이 안디옥으로 올라왔는데, 아마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토라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예수의 추종자가 된 이방인, 비유대인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저 너머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열정적인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경계에 있는 안디옥을 방문하여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누리려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의 전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의 전환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에 반대하고 안디옥에 약간의 불화가 있어서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와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절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생각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거나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때가 맞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논증에서 결코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듣습니다. 유대 기독교 선교사 몇 명이 갈라디아에 도착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 기독교 교사들이 안디옥에 올라갔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 모든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로 인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가 났고 우리는 구성을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탈북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 그래서 그 무렵, 바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온 교사들의 방문으로 분개한 후 갈라디아에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문법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바울은 문장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않고, 문장을 시작하지 않고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런 긴장된 상태로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많이.

글쎄, 나는 바울의 남은 생애,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사명 등을 계속해서 연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바울의 사역, 그의 사도적 사역에서 이 초기 편지로 이어진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이 편지는 이 책은 주후 49 년경에 기록되었으며, 그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대한 이 더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편지도 이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예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에 비유대인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1세기에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체포되어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 올바르게 표현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그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는 다양한 정당의 사람들을 해고하지 맙시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나는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곳에 자주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가 선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실제로 지중해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유대인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상모략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기에 유대인 공동체를 방문한 것 외에는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 공동체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유대인 공동체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모세.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사도, 단 하나의 사도였습니다. 비록 그는 선교팀의 일원이었지만 비유대인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대는 이런 방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바울을 추적하고 그의 뒤를 바짝 따르며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 공동체들에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의 마음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교사나 교사 또는 바울이 선교 사업 중에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안과 다른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 유대인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 누가는 율법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교회의 끝없는 적과 같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많은 바리새인들은 교회가 탄생한 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순결에 너무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순결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제자도 외부에서 가져온 문화적 헌신과 문화적 편견은 종종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바울에게 적대적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울의 반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 자신과 유대인 교사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